정책연구 2021-06

전북형 청년업무지구 조성사업 추진방안 검토

연구진 김시백 · 김수은 · 김동영 · 박세현

Jeonbuk Institute





전북형 청년업무지구 조성사업 추진방안 검토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시백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제5장 공동연구 김수은 | 연구위원 | 제2장 2절 일부, 3장 3절 일부 김동영 | 연구위원 | 제2장 3절 일부, 5장 1절 일부 박세현 | 전문연구원 | 제3장 2절 일부, 4장 1절 일부

자 문 위 원 송 기 정 | 캠틱종합기술원 본부장 김 공 수 | 군산대학교 교수

연구관리 코드: 20JU3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7
가. 연구의 범위	7
나. 연구의 내용	······7
다. 기대효과	8
3. 연구의 추진 체계	9
제2장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의 필요성	11
1. 청년 업무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13
가. 청년 일자리 거점으로서 매력을 잃어가는 산업단지	13
나. 혁신도시와 새만금 연계 창농 공간 확보	20
2. 청년들의 산업별 고용 행태 변화에 맞춘 업무 공간	22
가. 서비스업 선호에 따른 도시형 업무공간 조성	22
나. 귀농 귀촌 유입에 따른 농촌형 청년 마을 조성	25
3. 스토리를 가지고 복합 용도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27
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청년 행태	27
나. 공유지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화	29
제3장 국내외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사례	33
1. 청년친화공간의 유형	35
2. 중앙정부 추진 사업 사례	37
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37
나. 산업단지캠퍼스(산학융합지구)	39
다. 캠퍼스 혁신파크	42

마. 청년마을 만들기 5 3. 지방정부 추진 사업 사례 5 가. 전남 청년 창농타운 5 나. 판교 테크노밸리 6 다. 대구 C-Valley 6 라. 경상북도 청년거점지구 6 마. 안동시 청년 전용 지식산업센터 6	57 57 51
가. 전남 청년 창농타운	57 61
나. 판교 테크노밸리 ····································	51
다. 대구 C-Valley ···································	
라. 경상북도 청년거점지구	5 5
마 아동시 청녀 저용 지신사엇세터	56
1. 20 1 02 20 112 12 12 1	5 8
4. 시사점	72
가. 대학과 연계한 업무 공간 형성	72
나. 지역의 스토리를 담는 청년 공간 형성7	73
다. 창조적인 문화가 동반된 산업공간 형성7	74
제4장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여건 검토7	77
1. 산업 기반 측면	
가. 경제·산업, 일자리 구조 ···································	79
나. 국가사업과 연계한 주력산업 성장 가능성	31
2. 집적화 가능성 측면	
제5장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방안9)1
1. 기본 방향	
2.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추진 방안	96
가. 도시형 : 캠퍼스 혁신파크	
나. 농촌형 : 청년마을 만들기	
3. 시군 매칭 사업	
가. 도시형 : 기업·사회적기업연계	97
나. 농촌형 : 공동체 연계	
참고문헌10)1

표목차 | Contents

〈丑 2-1〉	전북 노후산단 현황15
⟨표 2-2⟩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일반현황16
⟨표 2-3⟩	정부합동 공모사업 추진 현황
⟨₤ 2-4⟩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주요 내용18
⟨₤ 2-5⟩	청년창업지원 사업분야 및 창업대상 업종 20
⟨₤ 2-6⟩	전국 연령별 산업별 취업 분포(2019년 기준)22
⟨표 2-7⟩	전라북도 연령별 산업별 취업 분포(2020년 하반기 기준) 24
⟨표 2-8⟩	전국 및 전라북도 귀농인 추이25
⟨표 2-9⟩	전라북도 30, 40대 귀농인 비율25
⟨표 3-1⟩	인구 소멸 대상 지역55
〈垂 3-2〉	판교테크노밸리 공급용지 기능과 주요시설61
〈丑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계 혁신 역량84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전라북도 청년 인구 및 순유출 추세	3
〈그림	1-2>	전라북도 연령별 고용률	4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	9
〈그림	2-1>	산업단지 인력구성 및 필요인력1	4
〈그림	2-2>	청년층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 사유	4
〈그림	2-3>	새로운 도심형 업무지구 개발 방향	9
		농생명 벤처타운 구상(안)2	
〈그림	2-5>	스마트팜 창농단지 구상(안)2	1
〈그림	2-6>	귀농청년에게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모델2	6
〈그림	2-7>	중관촌 창업카페 내부2	8
〈그림	2-8>	청년들의 행태 변화에 따른 업무 공간 제공 방식 2	9
〈그림	2-9>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전경	0
〈그림	2-10)	> 언더스탠드에비뉴 주요 프로그램3	1
〈그림	2-11)	› 부산 비콘그라운드 조감도 ······3	1
〈그림	3-1>	지식산업센터의 진화	5
〈그림	3-2>	창업지원주택 공간 구성	4
〈그림	3-3>	청년 창농타운 비전 및 목표5	7
〈그림	3-4>	판교테크노벨리 협력체계6	3
〈그림	3-5>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공간구성6	4
〈그림	3-6>	경상북도 10개 청년거점지구6	7
〈그림	3-7>	로컬라이즈 군산 현황7	4
〈그림	4-1>	전라북도 GRDP 성장률 추이7	9
〈그림	4-2>	전라북도 창업기업 신생률 추이8	0
〈그림	4-3>	전라북도 창업기업 신생률 추이8	n

〈그림 4-4〉전라북도 신생기업 생존률81
〈그림 4-5〉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기본구상 82
〈그림 4-6〉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구상 82
〈그림 4-7〉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83
〈그림 4-8〉미래형 모빌리티 관련 혁신자원 현황86
〈그림 4-9〉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와 미래형 모빌리티산업과의 관계87
〈그림 4-10〉SK E&S의 새만금 창업클러스터 주요 시설89
〈그림 5-1〉 농촌형 청년친화 업무공간 조성 방향94
〈그림 5-2〉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개념도95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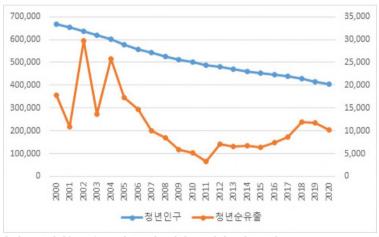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 3. 연구의 추진 체계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전라북도는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학적으로 자연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수도권 등으로의 타지역 유출이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을 상실하고 있음
- O 2000년 초반 청년 인구 유출이 많았다가 2010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 청년 인구의 사회적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 O 이러한 청년 인구 감소는 결국 전라북도 전체 인구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해야 하는 것이 지역 과제의 핵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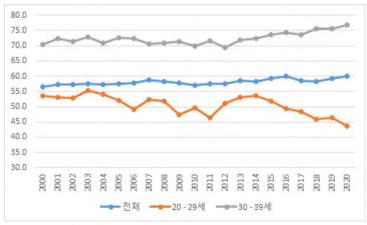


출처 : 통계청(2021),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청년인구는 20~39세 기준으로 구분

〈그림 1-1〉 전라북도 청년 인구 및 순유출 추세

-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은 일자리 문제 가 가장 크며, 그 외 교육, 문화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일자리 및 문 화 향유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
-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매칭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함
- 하지만, 고용률 등의 양적 지표 추세를 보면 30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20대, 즉 사회 초년생의 경우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출처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2〉 전라북도 연령별 고용률

-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대량으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바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 수준까지 고려해야 함
- 질적 수준은 단순히 공기업, 대기업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 질 뿐만 아니라 근무 화경까지 포함하고 있음

- O 따라서 최근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일자리 확충 뿐만 아니라 청년 친화 형 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근무 공 간과 문화향유, 거주 공간을 도심 인근에 제공하여 직주근접형 업무 공 간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형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국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청 년들이 도심에서 쉽게 떠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 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산업단지 입지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 혹은 업무 공간 제공 정책에 대한 방향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해 야 하는데, 일자리정책의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접근 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은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ICT를 포함한 첨단 업종의 기업 유치 및 벤처 창업을 지원하면서 문화, 편의 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공급하는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교육부, 증기부 등에서는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교 내의 유휴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 대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창업 및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2019년에한양대, 강원대 등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청년들이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신규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업무 공간을 제공하 여 도시 재생 사업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 것임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공급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 친화형 업무지구 조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방식및 대안들을 검토하고 국가 지원 사업 혹은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전라북도는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형성되어 있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단일 유형으로 청년 친화형 업무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군별로 맞춤형 사업 유형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가.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 시간적 범위

O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14개 시군

O 시간적 범위: 2022년 사업 추진 가능 모델

2) 검토 사업 유형

- O 산업단지 연계형
- O 캠퍼스 연계형
- O 창농 혹은 창업 단지 연계형
- O 청년 마을 연계형

3) 사업 추진 방식 유형

- O 중앙정부 공모사업
- O 전라북도 시군 매칭 사업
- O 민간 투자형

나. 연구의 내용

- 1) 국내외 청년 혁신 업무 공간 조성 관련 사업 및 정책 동향 검토
- 가) 중앙정부 추진 사례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교육부, 국토부)
 - O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중기부)
- 나) 지자체 자체 추진 사례
 - O 대구 삼성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사업(지자체)
 - O 경상북도 청년거점지구
 - O 전남 청년 창농타운

2) 전북 청년친화형 청년업무지구 조성 관련 여건 분석

- O 산업 측면
- O 시군별 특화 산업 연계 가능성(창업, 창농 연계)
- O 청년 친화형 산업 연계 가능성(ICT, 서비스업 연계)

가) 인력 양성 측면

- O 대학교 교육 및 이력 배출 현황
- O 지역 혁신기관 현황

나) 대규모 집적화 가능 구역 검토

- O 새만금군산 : SK 클러스터 연계
- O 전주: 전북대, 전주대 등 혁신기관 연계

3) 전북형 청년업무지구 조성 방안 제시

- 가) 중앙정부의 유사 공모사업 추진 동향 검토
 - O 유사 공모사업 중 타켓 공모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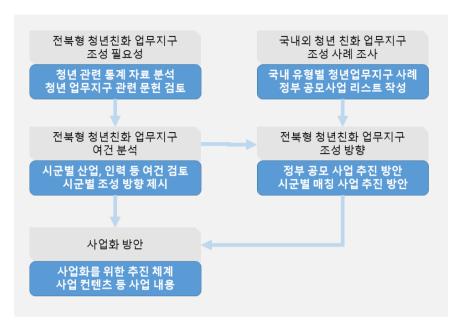
나) 시군 매칭사업 추진 방안

O 시군별 적정 사업 추진 방식 검토

다. 기대효과

- O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 뿐만 아니라 전북의 시군별 주력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친화 업무지구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을 도모
- O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국가사업화하여 지방 재정 여력 확보 및 사업 효과 제고 기대
- 전라북도 시군별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지역내 균형 발전 및 청년 정착을 도모

3. 연구의 추진 체계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의 필요성

- 1. 청년 업무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 2. 청년들의 산업별 고용 행태 변화에 맞춘 업무 공간
- 3. 스토리를 가지고 복합 용도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 2 장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의 필요성

1. 청년 업무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가. 청년 일자리 거점으로서 매력을 잃어가는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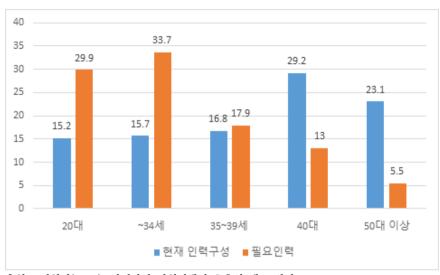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대량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었음
- O 1970년대부터 꾸준히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조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확보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산업단지가 점점 노후화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가용토지가 부족하게 되면서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어 왔음¹)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²)하고 산업단지 내 고용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³)등 기존 산업단지 정책의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O 또한 산업단지 내 종사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15.2%, 30대 32.5%, 40대 이상이 52.3%로 청년층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4)
- 산업단지가 이렇게 청년 일자리 거점으로서 매력을 잃어가는 원인은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 휴식공간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굴뚝 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이미지로 인해 주거공간으로서도 매력을 가지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¹⁾ 혁신단지 지정 2011년 4개에서 2018년 17개로 확대, 재생단지 지정 2009년 5개에서 2018년 24개로 확대

²⁾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현황 : 80.5%(2011년) → 74.4%(2015년) → 72.8%(2020년)

³⁾ 국가산업단지 고용 현황 :1,223,776명(2015년) → 1,066,120명(2020년)

⁴⁾ 이원빈(2020),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출처 : 이원빈(2020),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그림 2-1〉 산업단지 인력구성 및 필요인력



출처 : 이원빈(2020),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그림 2-2〉청년층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 사유

○ 전라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지역 산업 및 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O 전라북도의 산업단지는 지역 생산액의 81.4%(39.7조원), 수출액의 91.5%(71.7억달러)를 담당하는 산업거점으로 지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고용 규모는 2015년 75,194명에서 2020년 77,947명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전라북도 제조업 총 고용의 68.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일자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산업단지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물리적 노후화가 심하여 청년층의 이탈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의 노후산업단지 비중은 50.0%로 전국 비중인 37.0%보다 10% 이상 높아 산업단지 노후화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노후기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 3개, 30~40년 경과한 노후산단 15개, 20~30년 경과한 노후산단 26개임

⟨표 2-1⟩ 전북 노후산단 현황

구분		노후기간					
		40년 이상 30년 이상		20년 이상			
	계(44)	3개소	15개소	26			
국가(3)		1개 : 익산	-	2개 : 군산			
	일반(10)	2개 : 전주제1, 군산	2개 : 전주제2, 정읍제1	6개 : 익산제2, 정읍제2·3, 김제순동, 완주, 완주과학			
지 방 산 단	농공(31) -		13개 : 군산서수, 익산삼기, 정읍농소·북면, 남원인월, 김제황산·서흥·만경, 완주이서, 진안연장, 순창가남, 고창고수, 부안줄포	18개: 군산성산·옥구, 익산 황등·낭산, 정읍고부신태인, 남원어현·광치1·광치2, 김제봉황·월촌, 무주안성, 장수천찬장계, 임실신평·오수, 고창아산, 부안부안			

자료: 전북도청. 2020년 4분기 기준

○ 노후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2,560개인 반면, 비노후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876개에 불과하며, 전체 산업단지 고용자의 77.9%가 노후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산업단지 내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및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정주여건 이 매우 취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혁신을 위한 산업 공간 조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편리성을 따지는 청년층에게 일자리 공 가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음

〈표 2-2〉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일반현황

(단위:억원, 백만달러, 개, 명, %)

구분	지정면적	입주업체수	고용자수	생산액	수출액	
노후산단	90,543 (68.6)	2,560 (74.5)	61,422 (77.9)	334,218 (84.3)	6,371 (88.9)	
비노후산단	41,465 (31.4)	876 (25.5)	17,393 (22.1)	62,449 (15.7)	794 (11.1)	
전체산단	132,008 (100)	3,436 (100)	78,815 (100)	396,667 (100)	7,165 (100)	

자료: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020년 4분기)

- 산업단지의 노후화는 낙후된 기반시설과 지원 기능 부족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신산업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근본적 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 복지시설 등 지원시설 용지 가 부족하여 우수한 기반시설을 선호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산업단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청년층의 산업단지로의 구직 기피 및 생산인력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젊은 전문인 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악순화 을 불러일으킬 것임
- O 이러한 현상이 이미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산업단지도 역시 이러한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전라북 도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O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 편의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5)

⁵⁾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 또한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산업 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이하고 복합구역 비율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50%로 상향⁷⁾함으로써 청년들의 거주공간을 최 대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아울러 2019년부터 기존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합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를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물리적환경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조를 개편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려고 하고 있음

〈표 2-3〉 정부합동 공모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H÷I	поп	산단명	선정 사업비				1101 110		
부처	사 업 명		시기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 내용
	합 계			398	176	24	156	37	
	청년 친화형 서도	익산국가 산단	'18.6월	-					정부합동공모사업 우선 지원,
	선도 산업단지	전주제1 일반산단	'18.12월	-					지권, 공모가점 부여
	사어다기	군산1•2 국가산단	'19.9월	100	33	10	57		· 문화·복지·편의·주거
산 업 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주제1 일반산단	'19.9월	98	33	10	55		기능을 융합한 기능을 융합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정읍제3 일반산단	'19.11월	48	28	4	16		국립군외센터 신립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익산 국가산단	'19.9월	24	10		14		특화거리 조성,
		전주제1 일반산단	'20.5월	24	10		14		인도 정비, 야간 경관, 교통 개선 등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군산 국가산단	'19.11월	89	52			37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임대 (창업·중소기업 대상)
국토	노후거점 산업단지	군산 국가산단	'19.5월	10	5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5억원)
부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	정읍제3 일반산단	'19.11월	5	5				글게 중국(0국전 <i>)</i> 추진 중

⁶⁾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⁷⁾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⁸⁾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거점 혁신계획으로 추진

○ 여기에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합동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꾀하고 있음

〈표 2-4〉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전북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거점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산업단지 제조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주요 내용	제6조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기업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 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산업단지/군집 개별입지 산업집적활성화 기업·연구소·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산업단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문화콘텐츠 개발·확산·홍보행사 개최 지원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전라북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협의회 설치						

-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역(전라북도)에서 과거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노 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청년들의 인구이동 패턴을 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업들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춰 청년층들이 지역으로 이동했던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산업단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공간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단지의 구조 개편 노력과 함께 청년들이 거주하거나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즉 도심형 산업단지 혹은 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도시권에 있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와 같이 대규모 산업 단지보다는 소규모 네트워크형으로 개발하되 도시내에서 활용도가 낮은 공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 존		새로운 방향
비용절감추구		가치추구
기업중심접근	기업중심접근	사람중심접근
경직성		유연성
대규모		소규모
단절성, 패쇄성	,	연계성, 개방성
용도분리		융복합 공간
제조기능 주도공간		리빙랩
아날로그 인프라		스마트 인프라

출처 : 이현주(2020), 도시 미니산업공간의 새로운 개발 방향 〈그림 2-3〉새로운 도심형 업무지구 개발 방향

- 도시권 내에서 소규모 공간 개발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간의 융복합화를 추구하여 청년층 맞춤형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근거리에 기업, 상업 및 여가공간을 배치하고 접근 용이하게 복합개발화해야 할 것임
- 또한 과거에는 산업단지만 따로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산업공간을 조성 했었으나, 이제는 이를 지양하여 주변 도시지역과 공생하는 공간 구조로 개발해야 함
-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및 창업 공간 마련,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 정정책과 연계한 주택 공급이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O 이와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시권에서 산업용지 이외 지역, 특히 지역 대학 주변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찾아 청년 업무지 구로 개발해야 함

나. 혁신도시와 새만금 연계 창농 공간 확보

-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농업의 경우 스마트팜 등과 연계하여 점점 고부 가가치화를 꾀하고 있어 창농을 통해 농업 청년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의 경우 '농산업 창농타운'을 조성하혀 120개의 청년 창업 기업을 유치 및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입주 기업에 창업교육, 제품개발, 기술창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농산업 분야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9)
- 전라북도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 산업 관련 유관 기관들이 집적 화되어 있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하여 새로운 창농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
- O AI, AR, IoT, 등 첨단기술들을 전통 농어에 접목시킨 농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이러한 벤처기업들을 집적화시킴으로써 청년 고용 기회를 제 공하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창농타운을 조성해야 함
- O 하지만, 전라북도의 여건상 고차원의 기술과 융합한 농생명 분야를 단기 간에 육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농업과 연계한 가공 및 서 비스업에 초점을 맞춘 창업과 기업 유치가 필요함

〈표 2-5〉 청년창업지원 사업분야 및 창업대상 업종

사업 분야	창업 대상 업종			
기술 창업	기계, 재료, 전가· 전자, 정보통신, 화학,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 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융복합 아이디어 창업 등			
6차 산업 창업	농업과 연계된 기공 및 서비스업 등			
일반 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등			

출처 : 김시백(2017), 전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방안 연구

⁹⁾ 농축환경신문(2020), "전국 최초로 '청년 창농타운' 착공



출처 : 김시백(2017), 전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방안 연구

〈그림 2-4〉 농생명 벤처타운 구상(안)



출처 : 김시백(2017), 전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방안 연구

〈그림 2-5〉 스마트팜 창농단지 구상(안)

2. 청년들의 산업별 고용 행태 변화에 맞춘 업무 공간

가. 서비스업 선호에 따른 도시형 업무공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굴뚝 산업인 제조업은 서비스 산업과 융합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추구되고 있고 서비스업 역시 IT 와 융합하여 새로유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 중심의 창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창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산업입지 수요 역시 과거의 산업단지에서 비즈니스 파크 혹은 오피스 파크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O 도심형 산업의 등장으로 청년들은 산업단지에서 도시권으로 더욱 집중 하게 되었고 실제로 고용 행태에서도 과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6〉 전국 연령별 산업별 취업 분포(2019년 기준)

	청년층	타 연령층	
	비율	비율	
제조업	31.3%	40.1%	
음식료품 및 담배	1.9%	3.1%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1.8%	3.3%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	1.7%	2.4%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4.2%	5.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8.5%	11.1%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6.2%	6.2%	
기계 운송장비	8.2%	8.9%	
기타 제품	1.0%	1.4%	
서비스업	68.7%	59.9%	
도매 및 소매업	28.7%	25.3%	
숙박 및 음식점업	13.1%	8.6%	
정보통신업	7.0%	2.8%	
부동산업	1.1%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4%	3.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7.10/	10.00/	
임대서비스업	7.1%	12.6%	
교육 서비스업	2.5%	1.6%	
문화서비스업	1.0%	0.5%	
기타서비스업	2.0%	1.9%	
전체 고용	100.0%	10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 2019년 중소기업실태조사

- O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청년층 취업자의 31.3%가 제조업에 취업한 반면, 타 연령층의 경우 40.1%가 제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중에서 부동산업와 사업시설관리 등 생산자 서비스업 일부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청년층의 취업 비율이 타 연령층 취업 비율보다 높 아 도시형 산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같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에 대한 취업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입지 패턴을 보면, 기술 창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가 잘 갖춰진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청년들의 고용 패턴에 맞춰 산업단지보다는 첨단 산업이나 서비 스업에 초점을 둔 업무 공간을 조성해야 청년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 을 것임
-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분석함
- 분석 결과, 전라북도의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의 산업별 고용 비율을 비교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17.9%로 타 연령층(9.9%) 보다 아직까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농업 비중이 대단히 높은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비중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으며, 서비스업 취업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전라북도의 경우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취업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타 연령층에 비해 서비스업 취업도 전국 의 패턴과 유사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패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높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 및 창업 비율이

〈표 2-7〉전라북도 연령별 산업별 취업 분포(2020년 하반기 기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청년층 타 연령층			[령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차 산업	8,437	3.6%	162,816	23.2%
농업, 임업 및 어업	8,392	3.6%	162,377	23.2%
2차 산업	56,720	24.4%	135,283	19.3%
제조업	41,499	17.9%	69,292	9.9%
음식료품 및 담배	10,969	4.7%	20,257	2.9%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1,620	0.7%	3,889	0.6%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	1,470	0.6%	5,295	0.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4,566	2.0%	7,619	1.1%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7,274	3.1%	11,846	1.7%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3,853	1.7%	3,859	0.6%
기계 운송장비	10,929	4.7%	12,104	1.7%
기타 제품	818	0.4%	4,423	0.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31	0.9%	5,592	0.8%
건설업	13,190	5.7%	60,399	8.6%
3차 산업	166,926	71.9%	403,244	57.5%
도매 및 소매업	28,752	12.4%	62,733	8.9%
운수 및 창고업	7,620	3.3%	34,650	4.9%
숙박 및 음식점업	21,489	9.3%	41,324	5.9%
정보통신업	4,526	2.0%	7,498	1.1%
금융 및 보험업	8,513	3.7%	17,589	2.5%
부동산업	2,049	0.9%	12,326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43	3.3%	11,580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6,478	2.8%	13,501	1.9%
임대서비스업	0,470	2.070	10,001	1.37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340	7.0%	40,273	5.7%
교육 서비스업	23,084	9.9%	42,550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487	12.3%	80421	11.5%
문화서비스업	4,533	2.0%	7,215	1.0%
기타서비스업	7,412	3.2%	31,584	4.5%
전체 고용	232,083	100.0%	701,343	100.0%

자료 : 통계청(2021),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청년 업무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공 급 정책과 함께 도시권 활동공간도 같이 고려해야 함

나. 귀농 귀촌 유입에 따른 농촌형 청년 마을 조성

- 전라북도 소재 시군들은 도시권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도 농복합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도심형 업무 공간 뿐만 아니라 농촌형 활동 공간을 조성할 필요 가 있음
- O 사실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청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 일 수 있음
- 하지만, 기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귀농을 목적 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활동공간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귀농인이 1,327명으로 전국 귀농인 의 11.5%를 차지하여 귀농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함
- 귀농인 중에서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귀농인을 유치하는 것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임

〈표 2-8〉 전국 및 전라북도 귀농인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0,312	10,904	12,114	13,019	12,763	12,055	11,504
전라북도	1,140	1,170	1,181	1,273	1,374	1,335	1,327
비중	11.1%	10.7%	9.7%	9.8%	10.8%	11.1%	11.5%

자료: 통계청(2020), 귀농어·귀촌인통계

〈표 2-9〉 전라북도 30. 40대 귀농인 비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0대	15.3%	13.8%	12.2%	12.7%	13.6%	13.3%	12.1%
40대	25.9%	23.5%	22.6%	22.0%	22.0%	19.7%	33.1%

자료: 통계청(2020), 귀농어·귀촌인통계

주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만 39세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는 만 49세까지 청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활력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창조적인 지역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10)
- O 경남 남해시의 경우 도시에서 지역으로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마을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농촌형 청년 마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 축이 필요함



출처 : 조성철 외 4인(2019),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그림 2-6〉 귀농청년에게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모델

¹⁰⁾ 테크월드뉴스(2020), 행안부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 공모결과 발표

3. 스토리를 가지고 복합 용도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청년 행태11)

- 산업단지의 기능 약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청년층의 근로지 선택은 기대소득 및 취업 가 능성을 고려한 경제적 전망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
- O 이러한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청년들의 행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탈물질주의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 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탈물질주의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청년층들은 특정 공간의 장소성과 독특 한 이야기를 체험하는 경험에 대한 문화적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인 상업이나 업무공간보다는 공동체와 예술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목상권으로 청년들이 찾아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유치 개발하기보다는 고유한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장소성을 개발할 경우 청년층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로컬지향성으로 인해 청년 창업가들은 지방이나 시골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무대로 인식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¹²⁾
- 두 번째는 개성적인 개인들간의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청년 커뮤니티 가 등장했다는 점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되 조직적 규율에서 벗 어나는 개인주의적 공동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코워킹스페이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코워킹스케이스 의 기본 기능이 창업자나 창작자에게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배경 및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고 받는 커뮤

¹¹⁾ 조성철 외 4인(2019)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¹²⁾ 몇 년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지방 한 달 살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니티 기능을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문화가 특정 공간에서 확산될 경우, 창업으로 이어져 하나의 창업 거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됨
- 이와 유사한 사례가 중국 중관촌으로 이 지역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으로 신생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 계기는 다양한 창업카페들이었으며, 이 창업카페에서 창업과 관련한 아이디어 회의, 투자 협상 및 여러 생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창업생태계를 이루게 됨







출처 : 중앙일보(2016), "[中 혁신 현장을 가다]①중관춘-창업 거리의 커피는 식지 않았다 〈그림 2-7〉 중관촌 창업카페 내부

- 업무공간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도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데 코리빙 (Co-living)¹³⁾으로 세어하우징과 유사하지만 코워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거형태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며 서로 소통 및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 O 세 번째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유노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¹³⁾ 세어하우스(share-housing)과는 구분되는 개념

- 프리랜서나 원격근로와 다르게 자유노동은 다양한 고객과 관계를 맺으며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포트폴리오 워크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임
- 이는 대기업에는 취업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으로는 취업하기 싫은 상황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해지면서 IT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경제의 확대로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임
- O 이와 같은 청년들의 행태 변화에 맞춰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업무 공간 공급 방식을 기존의 대규모 단지 개발에서 소규모 커뮤니티형 공간 제공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코워킹스페이스,코리빙,살롱

출처 : 조성철 외 4인(2019),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그림 2-8〉청년들의 행태 변화에 따른 업무 공간 제공 방식

나. 공유지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화

- 기존의 청년들의 창업 공간 제공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전통시장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시장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
- 공공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의 빈 건물을 싼 값에 임대하여 제공하다 보니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책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다지 효 율적이지 못함

-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용하여 청년몰 형성을 성공적으로 하였다고 평가되는 전주 남부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청년 유입이 급감하 고 있어 과거와 같은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 도시 주변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O 또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빈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청년 입주자들이 각자 개성있게 꾸미도록 권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O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언더스탠드에비뉴를 들 수 있음
-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서울숲 진입로 1,200평의 유휴부지에 116개의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서울숲 경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3층 높이로 조성하여 청소면, 청년 벤처 사업가 등을 위한 교육과 일터를 제공하고 있음¹⁴⁾
 - 교육과 일터 제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 고 있읍



출처 : 소비자평가(2017), 도심 속 특별한 컨테이터, '언더스탠드에비뉴' 〈그림 2-9〉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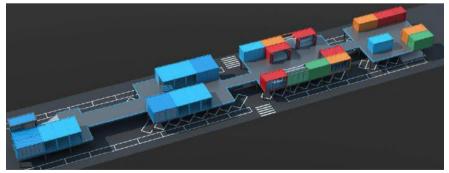
¹⁴⁾ 소비자평가(2017), 도심 속 특별한 컨테이터, '언더스탠드에비뉴'

- 언더스탠드에비뉴가 기존의 복합 문화 공간과 차이가 있는 점은 사업적 기업 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거나 청년 사업가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 가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 공헌을 한다는 점임



출처 : 소비자평가(2017), 도심 속 특별한 컨테이터, '언더스탠드에비뉴' 〈그림 2-10〉 언더스탠드에비뉴 주요 프로그램

-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간이 조성된 사례는 부산 수영구의 수영고가교 밑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상업,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한 사례가 있음
 - 수영고가교의 경우 부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시설이지만 고가도로 아래는 지역을 단절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공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 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1,300평 규모의 부지에 컨 테이터를 쌓아 복합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함
 - 이 공간 역시 문화 공간 뿐만 아니라 청년 및 사회적 벤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출처 : 매일경제(2020(m 창업, 착장...부산 컨테이너형 복합문화공간 7일 일부 개장 〈그림 2-11〉부산 비콘그라운드 조감도

- O 춘천의 경우에는 앞선 두 사례와 다르게 순수하게 창업단지로서 컨테니 어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함
 - 춘천의 근화동 철도하부공간을 1,300평 부지를 대상으로 컨테이너형 청년창 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창업가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핸드메이드 제품 창 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음
- 이와 같이 최근에는 도심권의 유휴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새로 건축물을 짓지 않고 싸게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단순히 창업이나 업무 공간이 아닌 문화와 상업과 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역시 전주, 군산 등이 도시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국내외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사례

- 1. 청년친화공간의 유형
- 2. 중앙정부 추진 사업 사례
- 3. 지방정부 추진 사업 사례
- 4. 시사점

제 3 장 국내외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사례

1. 청년친화공간의 유형

○ 청년 업무공간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는 시설은 지식산업센터로,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었으나, 제조업 등의 업무 공간 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등의 복합 기능을 함께 묶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청년 친화형 업무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출처 : 아이부키(2017), 청년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 용역 연구 보고서 〈그림 3-1〉지식산업센터의 진화

- 노후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정책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진행되면서 기존 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 중심으로 업종 구조 재편이 이루어졌고 청년층 고용이 급증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김군수 외 1인(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로공단 내 지식산업센터 비중 이 2001년 22.81%에서 2012년 39.68%로 증가하면서 전문과학기술, 출판 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산업 분야의 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

- 또한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의 연령 분포가 20대 비중이 15.0%, 30대 비중이 37.9%인 것으로 나타나 인근 국가산업단지(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20대 종사자 비중이 6.2%인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 고용비중이 월등이 높은 수준
-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높일 매력적인 근무환경 요소를 갖추기 위해 생산 ·업무시설과 상업·주거시설이 혼합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이 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를 대규모로 하거나 단지화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상업ㆍ편의시설과 녹지 및 휴식공간을 충분히 구비하여 높은 수준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제공
 - 근로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 제고는 곧 청년층의 취업선호도를 높임
 - 또한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인근에 1인 가구 주거시설도 확보 가능
- 하지만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다 보니 수익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만 집중하게 되면서 컨테이너를 활용한 청년 업무공 간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중앙정부 추진 사업 사례

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젊은이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산 추단을 ①창업과 ②혁신 생태계, 그리고 ③우수한 근로 정주환경을 두 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018년 3월 발표
- 기존의 산업단지 지원 대책은 지식산업센터 등 산단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한 측면이 컸으나, 이 대책 으로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 구축과 함 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규제완화, 민간투자 유치, 정부재정 투입 확대 등을 통해 창업 혁신, 근로 정 주환경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2) 지원 내용

가) 창업입지와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활력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 O 산업단지 내 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정보기술(IT) 지 식산업 등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여 지식산업센 터를 대폭 확대
 -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중 확대(20%→ 30%~50%)
 -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 허용
 - 산단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 등
-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벤처기업 등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900㎡)을 국가산단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단 입주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

- O 관리기관이 산단 내 휴 폐업 공장 부지 매입 후 정부 민간 매칭을 통해 리모델링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게(주변시세의 70%) 임대공장을 제공
- '산단-대학-연구소 연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을 검토해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부지에 기업 연구관과 창업기업육 성센터를 조성, 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 추진

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선도

- 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 벤처 창업기업을 집적하고, 일하기 좋은 근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문화편의시설 등도 복 합 설치
- 산학연간 '제품기획-연구개발(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비즈 니스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 학간 인력양성과 취업이 상호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 확대
-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혁신을 위해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을 지원

다) 근로 정주환경 개선

-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 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개발사업자의 투자유치와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부담제도를 합리화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시, 공용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의무
- 산단 특성과 지역수요조사를 통해 범부처 산단 지원사업을 수요 맞춤형 으로 묶어(패키지) 지원하고, 지원사업도 확대
 - (산업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고용부) 어린이 집, 통근버스·기숙사 지원 등, (문체부) 개방형 체육관 등, (국토부) 배후지역 임대형 행복주택 등

나. 산업단지캠퍼스(산학융합지구)15)

1) 개요

- O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교육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적용하여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화되는 체계 구축
-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및 여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질적 수준을 향상

2) 지원대상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 다지캠퍼스 설치 인가를 받을 대학
 - 본교 캠퍼스가 위치한 동일 광역경제권역의 산업단지로 이전
 - 교지·교사는 소유 또는 영구·장기임대 가능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22조의4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혀하는 대학은 사업 대상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의 자체 시설, 기업과 연계한 연구시설 등 거점공간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함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의「先취업 → 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¹⁵⁾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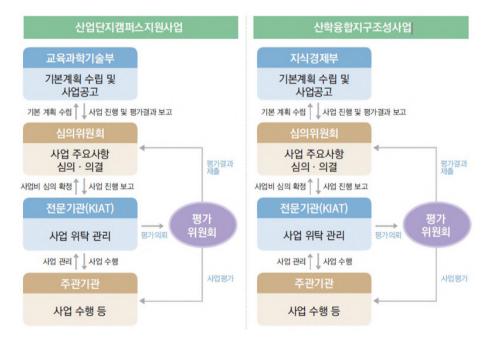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 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22조의4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 대학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 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산업단지캠퍼스 운영 및 산학융합연구실 등 프로그램 지원
 - 산학융합연구실 :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과 인력(학부3 ~ 4학년, 대학원생)을 공유하여 연구 개발·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실
 - 교육과정 개편 : 수요기반 실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산업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실습 교육)
 - Information Center : 기업지원, 연구·교육, 고용연계 등을 위한 지원 창구역할 수행 및 대학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지원, R&D 연계
 - 자율프로그램 : 산업체 재직자 교육, 장비지원센터 등
- O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거점 공간 조성, 산학융합형 대학운영체제 도입 및 인력양성-고용-R&D 선순 화 체계 구축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 산업단지캠퍼스 설치·운영, 기업연구관 조성, 근로 자/학생 복지·편의시설 마련

- 근로자 평생학습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한 재직근로자 대학입학시 특별 전형제도 도입,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동업자대학 설립, 비학위과정 개설 등
-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 프로젝트 Lab을 통해 현장형 엔지니어 양성, R&D 인턴십 도입. Business Lab 구축
-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 기업수요 기반의 R&D 프로젝트 활성화 및 석· 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산학융합 R&D), 기업연구관 입주 지원 등
- 산학융합형 대학체제 개편 : 교원임용시 산업체경력 인정비율 100% 확대, 산업체경력 채용 비율 30%이상 상향, 교원평가시 산학협력 Track 신설 및 확대, 산학협력실적 반영비율 50%이상 상향,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정규교과 반영, 실습과정 위주의 학점으로 학·석사 학위 취득, 프로젝트형 연구실 운영

5) 추진 절차



다. 캠퍼스 혁신파크16)

1) 개발 방식

-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한국토지주 택공사(LH)가 대학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대학이 지닌 혁신 역량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 첨단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
- O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상향 조정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

2) 지원 내용

- 창업기업 및 창업 후 성장 기업(Post BI)에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 제공
 -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 차등 적용(시세의 20~80%)
-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 가능하 도록 지원(예: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
 -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에 업무생산을 위한 산업시설 설치를 허용
 - 산업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국·공유지 임대 기간을 연장(최장 50년)하고, 임 대 요율도 인하(재산가액의 연 5% → 1%)
- O 기업 간 교류와 코워킹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오픈형 공간 (Station-F 벤치마킹)으로 조성
 - 대학의 연구 인프라(고가 장비, SW)와 혁신역량(컨설팅, 마케팅 등)을 활용 하여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

¹⁶⁾ 관계부처 합동(2019),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참고하여 작성



- 대학과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이 함께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인재양성)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실습, 인턴십,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 추진
 - (창업 활성화) 활발한 창업도전을 위해 초기창업패키지(약 20억원)등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
 - 창업 동아리, 창업 연구년제 등으로 학생, 교수의 혁신 창업 지원
 - 캠퍼스 혁신파크 내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을 유 치하여 입주기업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
 - (기업 역량 강화) 산학 공동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대학 기술 사업화 펀드도 연계 추진
 - 대학 기술기반 창업 및 대학생 창업기업 투자, 22년까지 6천억원 신규 조성
- 지역 혁신 거점기관(혁신도시 공공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발 스타트업 발굴의 첨병 역할 수행
 - IR 피칭, 투자 상담회, 멘토링 등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 구 등 관련 정책과 연계 추진
 - 신기술·신서비스 업종 육성을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지원

3) 청년 친화 공간 조성 내용

○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업무 환경 조성

- 체력증진시설, 목욕시설 등은 10억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50% 지원
- O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주차장 설치 지원 검토
 - 설치비를 무상 지원하고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 주거 지원을 위한 (가칭)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 추진
 - 캠퍼스 혁신파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여부, 공급규모, 입주 우선 순위 등 결정



〈그림 3-2〉 창업지원주택 공간 구성

-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해당 기업 종사자 숙소로 제공시, 임차비를 지원(1명당 30만원 이내)
 - 산단 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1억. 연 1.2%) 지원
-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대학 통근버스, 체력단련실, 회의실, 보건실, 식당, 대학병원 등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주요 기능과 역할〉

성장 창업존

- 창업자(학교 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시세의 약 20% 수준)
- 아이디어 사업화, R&D 지원 등 창업보육 지원

기업 활동존

-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 등에 임대공간 제공
-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자금, 판로, 수출지원 등 지원

주거·복지·편 의존

-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복합설치로 일과 삶의 조화

도시재생 사업 연계시 사업 내용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보유 자원 (교육부) 대학 실험실 교수연구동 대학 도서관 운동장

신규조성 (국토부, 중기부) 첨단산업시설(국토·중기) 창업지원주택(국토부) 복합문화시설(범부처) 스마트주차장(국토부) 굥통

도 시 재 생 혁 신 타 운 도시재생 뉴딜

대학예술·문화촌 청년상가몰 (국토부·지자체)

라. 마포 청년혁신타운

1) 개요

- O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최초 '청년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조성 방안을 발표
-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용도 변경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세부 조성계획을 마련

2) 기본 방향

○ 청년 창업가의 접근성이 뛰어난 강북 마포에 3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청년 창업지원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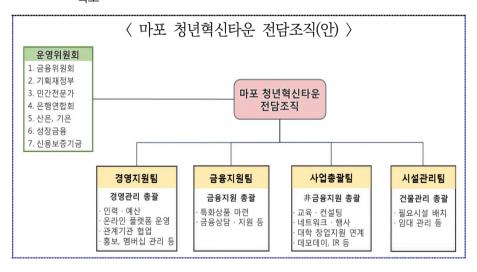


- 혁신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 한「청년 예비창업/창업기업」을 중점 지원
- 핀테크,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혁신창업 허브」공간으로 구성
- O 창업보육기관(D.CAMP 등),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민 간 주도로 혁신기업 선별육성
 - 대학 창업지원단, 창업보육기관, 기술기업 등 창업 관련 민간 네트워크 활성 화를 통해「창의와 혁신」에 기반하여 운영

○ 성장단계별 종합 금융지원과 함께 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全분야 가 패키지 지원되는 「금융・非금융 복합지원」 추진

3) 추진 체계

- O (조직)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하 "청년창업재단")에 전담조직 마련
 - 창업공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청년창업재단에 마포 청년혁신타운 관리를 총괄할 전담조직 마련
 - * 청년창업재단은 '13년 국내 최초로 창업지원공간을 마련(브랜드명 "D.CAMP"), 235개팀 보육, 데모데이·워크숍·멘토링·IF 페스티벌 등 7천여회의 행사 개최
 - 은행권 중심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청년창업재단이 확보한 재원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운영
 - * 리모델링 비용은 신보가 부담(일회성, '19년 신보 기금운영계획에 반영), 창업공간의 필수적인 운영비용(매년 지속적으로 발생)은 청년창업재단을 통해확보



- (구성) 청년창업재단 인력 및 창업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은, 신보, 성장금융, 기은, 창진원 등 파견 인력으로 구성
 - 전담조직을 실무적으로 총괄할 책임자를 배치하고, 전담조직이 청년혁신타운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

- O (운영위원회) 청년혁신타운 관리·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기 관간 긴밀한 협업을 위해 전담조직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 * 청년혁신타운 운영기준 수립, 예산 편성·집행, 입주기관 선정방식 등 주요 업무를 논의

4) 지원 내용

가) (금융) 성장단계별 종합 금융지원

- O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우대상품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한 「청년혁신타운 전용 금융상품」마련
 - 청년혁신타운 입주 AC·VC가 先투자한 입주기업에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신보 등)이 매칭하여 투·융자 지원
 -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통한 투·융자 우선지원*
 - * 청년혁신타운 입주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혁신모험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이 후속 투융자 지원
 - * 크라우드펀딩 관련 홍보비용 지원, 중개사 추천,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개최 등
 - 서울시가 조성하는 「혁신성장펀드」를 통한 투용자 지원 등
 - * 향후 5년간 총 1.2조원 규모(창업기업, 핀테크 등 4차산업 영위기업 등 지원)
- 최우수 입주기업을 선정*, 대규모 투·융자를 통해 유망기업의 성장을 전 폭 지원하는 「(가칭)유니콘 프로젝트」마련·실시
- O 지점 신설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상담·지원 집중

나) (네트워크) 각 분야 전문가(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경험, 아이디어를 교류

- O (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멘토링, 세미나, 커뮤니티 활동, 데모데아·IR·성 공기업인 초청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
- (지역) 서울시 등 지자체, 인근 대학창업지원공간 공동으로 다양한 스타 트업 행사를 개최하여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청년창업문화 조 성확사

- O (대학) 창업 강의를 개설하고(수료시 학점 인정), 스타트업 인턴십·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 인재와 혁신창업기업의 수요를 매칭
- O (해외) 글로벌 컨퍼런스 유치, 미·중유럽·ASEAN 주요 창업공간과 MOU 체결 등 해외 창업생태계와의 협조체계 구축

다) 컨설팅·교육 및 혁신아이디어 구현

- (컨설팅) 맞춤형 창업정보(K-Startup) 제공 및 창업·경영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회계·법률·특허·마케팅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개설
- (교육)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운영 하고, 대학 창업지원단 등과 연계한 창업교육도 개설
- (아이디어 구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라) 해외진출 및 홍보 지원

- O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각 국의 KOTRA 무역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VC, 금융기관 등 초청 글로벌 IR을 개최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유수 컨퍼런스 참가비, 투자유치 라운딩 출장비 등도 지원
- O (국내외 홍보)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

- O (교육) 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4차 산업혁명 10 대 융합산업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첨단장비가 갖추어진 전문교육 맞춤형 강의실·체험공간 등을 포함한 "ICT 이 노베이션 스퀘어"구축
 - *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정보보호, AR/VR

O (컨설팅)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1:1 멘토링, SW 시제품 시연 및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바) 핀테크 특화 보육 프로그램 마련

- O (전용 공간) 핀테크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핀테크 지 원센터와 전문 AC가 함께 보육하는 전용 공간(핀테크 리더스랩)을 마련
- O (전문 교육) 기술(Technology), 지식재산(IP) 등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 그램(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
- O (컨설팅) 금융권 IT 담당자, 대기업 엔지니어, 관련분야 교수 등 실무경 힘을 겸비한 전문가가 상시 멘토링 실시
- O (제도적 지원) 금융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 등) 참여 지원
- (서울시 연계) 핀테크랩을 운영('18.4월 개소)하고 있는 서울시와 협업 하여 마포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생태계 구축

5)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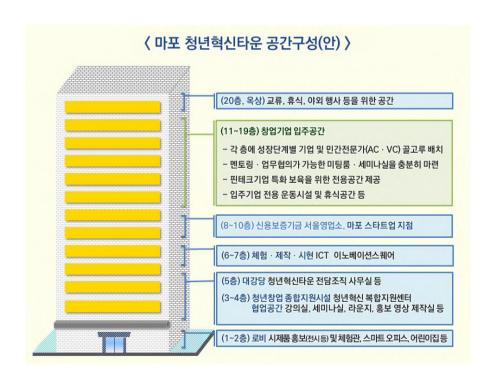
가) 개방공간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

- 오픈 카페, 창업지원시설, 교육행사장, 영상제작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시연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 * 예비 창업자, 1인 창업가 등 非입주기업이 사무실 주소로도 사용 가능하도 록 지원 등
- 청년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 등을 통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 등에게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 O 1층 로비에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시연·전시하여 홍보 및 프로 토타이핑(Prototyping) 공간으로도 활용

나) 입주공간 : 선발된 입주기업 전용공간

○ 사무공간, 회의실 등 네트워킹 공간, 휴게실 및 복지공간(운동시설, 어린 이집 등) 등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입주기업 전용공간

- O 성장단계에 따른 사무공간 제공
 - 팀빌딩 단계의 초창기 소규모 창업·예비창업기업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 팀원간 화합이 용이한 사무실 형태의 반독립형 공간
 -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성공하여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위한 독립형 사무실
- O 입주기업과 민간운영사(AC·VC 등) 등을 한 층에 혼합교류
 - 성장단계별 기업, AC·VC 등 다수간 연결과 교류를 통해 '공간의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
 - 각 층에 멘토링·협의가 가능한 회의실 등을 충분히 구비
- O 입주기업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공간
 - 입주기업 전용의 운동시설 및 휴게실(샤워실 등) 등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등 청년혁신타운 입주기관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마. 청년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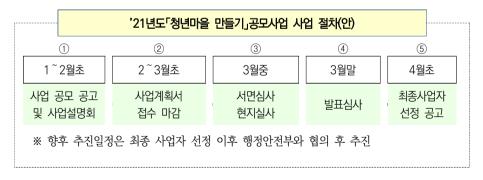
1) 개요

- O 지방 청년들의 타지역으로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 O 청년단체 및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 제안을 하며, 참여 인력 중에서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지역마다 청년 연령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에 근거 하여 청년 범위를 두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 고 있음

2) 사업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공간조성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 조성
프로그램운영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홍보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3) 공모 절차



4) 평가 배점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	①구체성	35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마을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예) 공간조성,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실효성			·(탁월) 35~28점, (우수) 27~20점, (보통) 19~12점, (미흡) 11점		
(50)	②체계성	15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③중장기 관리방안	10) 중장기 관리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 조직, 인력, 예산 등 중장기 관리방안 제시 여부		
사업 지속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20)	④지역 연계성	· 1 1()	○ 지역특성에 맞춘 청년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예) 지역자원(기술, 문화 등)과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⑤지역주민 지원의지			15	○ 지역주민과의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예) 지역주민-청년단체 협의체 구성, 사전 논의 진행 정도, 지역자원 지원 의지 등
지역 추진의지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30)	⑥자치단체 지원의지	15	○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지역자원(공간, 예산, 인력 등) 제공 의지 (예) 시·군·구청의 사업비 지원, 해당 읍·면·동 담당지원 배치 등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2	소계	100	사업 실효성(50)+사업지속성(20)+지자체 추진의지(30)		

기.저	지역소멸	2	○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근거한 지역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71'=	대상지역	3	경우(붙임 참고)	

〈표 3-1〉 인구 소멸 대상 지역

구분	18년	19년	20년
계	89	93	105
서울			
부산	동구, 영도구, 중구	동구, 영도구, 중구	동구, 영도구, 중구,서구
대구			서구
대전			
광주			
인천	강화, 옹진	강화, 옹진	강화, 옹진, 동구
울산			
경기	가평, 양평, 연천	가평, 양평, 연천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강원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황성, 화천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화천, 동해, 양구, 인제, 강릉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과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경북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사천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사천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완주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완주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나주, 무안

5) 주요 성과¹⁷⁾

○ 경북 문경읍은 청년협의체 '가치살자'팀이 운영하는 '달빛탐사대' 운영을 통해 모두 60명의 타 지역 청년을 모집해 8월부터 4개월동안 지역살이를 시작함

¹⁷⁾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의 내용의 참고하여 작성

- 프로그램 운영에는 달빛멘토단으로 〈골목길자본론〉의 저자인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여성기업인 도레컴퍼니(대표 김경하)와 한국리노베링(대표 이 승민), 낯선대학(대표 백영선) 등이 참여
- 충남 한산면은 지난해 정착한 47명에 이어 올해도 40명의 청년을 새로 받아들여 지역정착을 지속
 - 노후화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림회관'을 청년들의 공유사무실로 재단장하고 한산면 전체에 광대역 네트워크 5G 통신망을 설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노마드 마을을 새롭게 조성
 - 청년역량강화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HBM사회적협동조합과 팀창업 교육을 진행해 지역 특산물인 소곡주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
- 부산시 자갈치시장에 세워지는 청년활력센터 '하고재비'는 무슨 일이든 안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경상도 말로 부산시는 하고재 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임
 -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특별한 일상을 보내는 도심스테이 프로그램 '사이소 프로젝트', 청년정책의 혁신을 위한 실험실 '오만때만 연구실', 청년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학교' 등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짐
 -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분야에 대한 강연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청년 인생 정거장'과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청년실행조직 '청년독립지대'설립 등을 통해 청년주도 참여의 확대를 추진
- 부안군의 청년활력센터 "되는데요 부안!"은 부안형 청년정책 발굴 제안, 우프코리아 연계 타지역과 청년교류, 청년-청소년 멘토멘티 "나도 선생님", 청년들의 매월 색깔있는 놀이축제 등을 위한 부안청년연합체를 구성
 - 청년창업 기초교육 및 청년문화 콘텐츠교육 등 청년행복 코칭사업 추진과 도 시재생 뉴딜사업, 수소산업 인프라구축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를 추진해 청 년창업에 특화된 사업 추진

3. 지방정부 추진 사업 사례

가. 전남 청년 창농타운

1) 개요

비전	점난농업	법 교육 및 농식품 성공 창	업 중심시
3 C H	2025년 신	선도 첨단농업경영체 육성(200개소	ĺ
아니 목표	2025년 10	00개 스타트업 기업 육성(연매출 1	억원 (<mark>이</mark> 상)
1	2025년 중	견기업 20개소 육성(매출 30억 이	상)
	첨단농업교육훈련 기반구축	스타트업 인재 육성	성공창업 생태계구축
추진 전략 및 과제	・생산(실습)시설 및 기자재 구축 ・스파르팜(원예, 축산 등)기반조성 ・기숙시설 구축 ・교육시설 구축 ・체험 및 판매시설 구축	ABS 스쿨 운영 ABS 창업준비 스쿨 ABS 캠퍼스 스쿨 ABS 마케팅 스쿨 ABS 하업 스쿨 ABS 창업 스쿨 ABS 스쿨 프로그램 개발 기업-소비자 연계 체계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 재무, 법률, 특하 등 관련지원 · 멘토단 운영 · 투자기금 조성 및 연계시스템 등 지원제계 구축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기업 유통업제 소비자 연계 체계

〈그림 3-3〉 청년 창농타운 비전 및 목표

2) 추진 전략

- 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농지원 첨단농업교육훈련 기반 구축
 - O 생산실습 및 기자재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빅테이터, 사물인터넷, 첨단농업용로봇, 드론 등 첨단농업 실용화를 위한 생산설비 및 기자재 구축
 - O 스마트팜 기반조성
 - IT,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시설원예, 축산, 아열대과일 등 스마트팜 시설 구축
 - O 기숙사시설 구축

- 장, 단기 교육을 지원할 기숙시설 구축
- 교육훈련 시설 구축
 - 첨단농업기술 강의에 필요한 시설구축
- O 체험 및 판매시설 구축
 - 시제품 개발 및 생산된 농식품 제품 판매를 위한 시설 구축

나) 창업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인재 육성

- O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 창업과 관련 원스톱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 효율적인 창업과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O 기업-소비자 연계 시스템 구축
 - 창농자금 지원 및 개발된 농식품 판매를 위한 농식품과 소비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

다) 성공창업 생태계 구축

- O 원스톱서비스제공 시스템 구축
 - 제품개발, 홍보, 판매, 수출, 특허지원 등 시스템 구축
- O 창업 성공을 위한 멘토단 운영
- O 투자활성화 기반 구축
- O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12-24 조례 제 52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창농"이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 2. "예비 창농자"란 창농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 3. "창농기업"이란 창농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를 말한다.
- 4. "지원기업"이란 투자, 상담, 판로지원 등의 형태로 예비 창농자 및 창농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하다.

제3조(기능) 청년 창농타운(이하 "창농타운"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창농 교육
- 2. 예비 창농자 및 창농기업 컨설팅 지원
- 3. 예비 창농자, 창농기업, 지원기업 간 관계망 구축
- 4. 가공·포장 장비 지원
- 5.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 6. 그 밖에 창농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① 창농타운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비즈니스센터
- 2. 제품지원센터
- 3. 교육관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그 시설 내부·외부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농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 개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창농타운을 연중 개방한다.

- 1.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 창농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농타운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농타운 누리집 등에 휴관일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 제7조(시설 사용자 등) ① 창농타운은 예비 창농자, 창농기업, 지원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 ② 제1항 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비 창농자, 창농기업, 지원기업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③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 사용료) ①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에게 별도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도 및 소속기관, 정부 기관 등의 창농 목적 사용
 - 2. 창농타운 입주자의 창농 목적 사용
 - 3. 창농 관련 협회·단체·조합이 주최하는 행사
 - 4. 창농 관련 학술 세미나
 - 5. 그 밖에 창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입주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들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창농타운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예비 창농자로서 사업 구상이 완성된 자
 - 2. 도에 주소를 둔 창농기업
 - 3. 예비 창농자나 창농기업을 지원한 실적이 있거나 창농기업을 선도할 역량을 갖춘 지원기업
 - ② 그 밖에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입주자협의회)** 도지사는 입주자 사이의 정보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보험 가입) ① 도지사는 창농타운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에 필요할 경우 입주자에게 관련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판교 테크노밸리18)

1) 사업개요

O 위치: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O 규모: 661,925㎡(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8,922천㎡)

O 기간: 2005~2015

O 사업비: 5조 2,705억원(토지 1조4,046억원, 건축 3조8,659억원)

○ 시행자: 경기도(경기도시공사 대행)

O 전담관리기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표 3-2〉 판교테크노밸리 공급용지 기능과 주요시설

공급용도	투자주체	도입기능	주요시설	
초청연구 용지	공공+민간	글로벌 R&D시설 등 특별히 초청 유치하는 기능	국내외 글로벌 R&D 등	
일반연구 용지	민간	단지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 및 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능	연구집적시설, 연구개발시설 등 산학공동연구센터	
	공공+민간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기능	창업지원, 데이터센터, 정보교류시설 등	
연구지원 용지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교류지원시설,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연구시설 등 첨단산업관련 전문대학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센터 등	

자료: 이상훈 외, 2014, 경기개발연구원

2) 개발 배경

-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시작해서 지원시설 판교용지로 20만평을 제외하고 사업을 시작함
- O 2004년 11월 직접조례인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 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 O 이 조례를 통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공기업

¹⁸⁾ 김시백(2017)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설치·운영, 입주자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심의 위원회 등 여러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3) 추진 전략

- O 특별계획구역 지정
 - 경기도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구를 다양한 기능들이 혼합, 기능별 상호 보완과 상승효과를 발휘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공급대상별로 초청연구단지, 일반연구단지, 연구지원단지 등 설정하여 업종벌 /기능별 분할
- O 사업추진방식
 -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조성사업을 위탁하여 공익성을 제고하고 R&D기능의 유치 노력
 - 초청연구용지 등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원가 수준에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
- O 토지공급방식
 - 당시 경기도에서는 용지공급가격이 높아질 경우 영세 IT기업입주 수요가 감소하여 IT집적화 시설 구축에 차질 우려하여 첨단지식기반 도시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익을 추구치 않는 원칙 설정
 - 초청연구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수준으로 공급하여 초기 판교테크노밸리정착에 크게 기여

4)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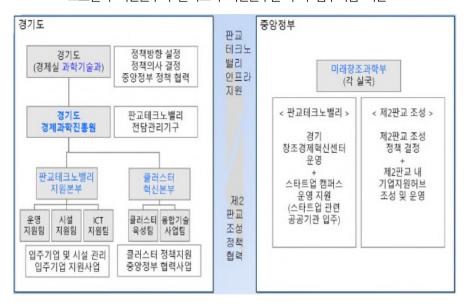
- O 개발 과정
 - 중앙정부 : 의사결정 역할, 열린 정책결정과정으로 다양한 주체 참여
 - 경기도 :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단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과정 주도하고 판교 개발 방향 제시
 - 성남시 : 경기도에 협조하여 판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 판교신도시 개발 가시화를 위한 연구실시, 판교 신도시 사업 공동 시행자

O 운영 과정

- 중앙정부 :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지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 경기도 :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 정책 방향 결정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 판교 테크노밸리 전담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판교테 크노밸리 지원본부와 클러스터 혁신본부를 두어 입주기업 지원



〈그림 3-4〉 판교테크노벨리 협력체계

5) 주요시설 및 입주기업

- 글로벌 R&D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경기문화창 조허브, 콘텐츠진흥원이 있음
- 국내 상위 10대 게입업체 중 7개(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웹젠), 전국 반도체 팹리스 147개 업체 중 성남시에 53개, 판교밸리에 18개 업체가 집적되어 한국 IT산업의 메카로 부상

6) 스타트업 캠퍼스

O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는 ICT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경기

도 산하의 창업지원 기관의 집적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과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약 200개 스타트업 기업의 입주 가능

○ 경기도의 투자로 2016년 3월 개소한 스타트업캠퍼스는 국내 최대의 스 타트업 육성 공가



〈그림 3-5〉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공간구성

○ 판교의 스타트업 지원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보육공간 제공부터 시제품 제작, 테스트장비 지원 등의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까지 다양함(정광용 외, 2016)

7) 성공요소

-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에서 판교까지 1시간 이내 접근성이 좋아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경기도가 직접 토지공사를 진행하면서 신도시의 이익을 판교테크노밸리 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초기 분양 및 임대료가 주변도시에 비 해 저렴
 -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파악을 위한 114개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2010)에 서 단지발전가능성과 분양/임대가를 입주동기로 선호
 - 실제로 카카오 조성원가가 평당 800만원이고 감정가가 900만원이었지만 첨단산업단지 기업에게 조성원가로 판매(경기연구원 성영조 박사 인터뷰 내용)

- O 공공 및 민간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이 제공되고 투자자, 전문가, 지원기 관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제품 제작과 테스트가 가능
 - 교육공간, 창업공간, 세미나, 네트워킹, 시제품제작, 데모데이 등 창업을 위한 시설과 행사지원
- 이미 성공한 선도기업의 초기입주와 창업기업과 선배 벤처기업과의 연 계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관계 형성용이
 - 판교에는 2016년 현재 1,121개의 선도기업이 유치해 있어 성공한 기업과 스타트업과의 멘토링, 정보교류, M&A 등 비즈니스 협력생태계 풍부

다. 대구 C-Valley¹⁹⁾

1) 개요

- 창조경제단지 경북도청 이전터 · 동대구벤처밸리 · 수성SW클러스터 계명대(대명동) 연계로 대한민국 3대 창업허브로 육성
 - 대구삼성창조캠퍼스와 연계해 동대구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

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O 2013년 개소한 이곳은 그동안 1기생부터 4기생까지 청년 창업자 229 팀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창업자의 매출은 203억원, 고용 창출 인원도 748명에 이름

3) 크리에이티브팩토리

O 대구에서 3D프린터 등 하드웨어 창업 지원을 담당

¹⁹⁾ 김시백(2017)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O 하드웨어 분야 창업에 맞게 기획·설계·개발·시장 진출 등 4단계별 맞춤 형 지원

4) 대구삼성창조캠퍼스

- 총사업비 900억원이 투입된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9만㎡ 용지에 벤처 창업존, 문화벤처융합존, 주민생활편익존, 삼성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
- 벤처창업존은 창업과 벤처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일대 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벤처오피스 등 대구지역 벤처기업과 창업 지원시설이 들어서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
- 문화벤처융합존에는 오페라체험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뮤지컬아카데 미 등 문화예술 융복합 시설로 구성
- 주민생활편익존은 야외공연장, 잔디공원, 편의시설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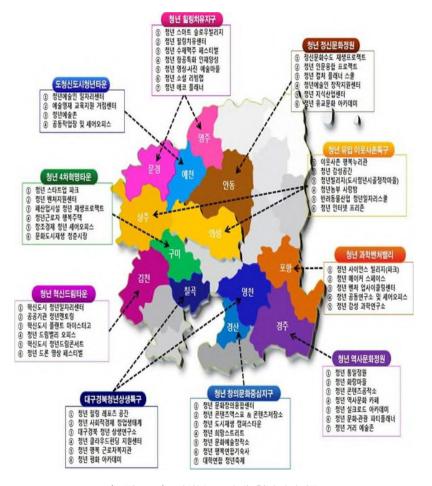
5) 성공요소

-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지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대구시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창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
- O 대학을 중심으로 한 R&D 지원과 공공 창업 지원 기능이 잘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창업인을 양성할 수 있음

라. 경상북도 청년거점지구

- 경상북도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에 서 탈피하여 개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으로 개선 보완을 시도
- O 청년밀착형 생활경제기반 시설확충과 청년 친화적 활동생태계 조성, 청 년정책과 지역 전략사업을 연계하여 벨트화하는 전략을 수립

- 이를 위해 청년경제 SOC 구축, 지구별 특화모델 다양화, 10개 청년거 점지구 활성화 등의 '청년행복 플랫폼'과 청년 창의성 특화콘텐츠, 청년 소통감성, 힐링 생태계, 경북청년 역사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경북형 청년 생태계'와 함께 청년정책과 지역발전 연결, 청년 지역 협력 거버년 스, 청년통로 연결 벨트화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정함
- 중점 추진 전략 중 하나인 10개 청년거점지구는 지역 10개 대학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사업과 도시재생사업등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그림 3-6〉 경상북도 10개 청년거점지구

마. 안동시 청년 전용 지식산업센터

- 청년 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기업 입주 를 유도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
- O 안동시 청년 전용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O 주요 지원 내용
 -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11.06 조례 제15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가 설립한 지식 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다.
- 4. "관리수탁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 입주기간 및 연장) 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일 후 매년마다 기업심사를 통하여 입주기간 지속·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업의 퇴거) ① 센터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 1. 기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3. 센터의 운영지침 또는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4.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는 입주기업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항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자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수탁자를 심의·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기간
 -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약서에는 관리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관리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① 관리위탁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 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관리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 2. 관리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식산 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 센터 입주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 안동시의회(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 센터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 3. 그 밖에 센터 입주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준용) 관리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 칙(조례 제1563호, 2020·1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시사점

가. 대학과 연계한 업무 공간 형성

- 청년들이 산업단지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부족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라는 독립된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교류의 단절과 고립을 염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임
-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는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속적인 자기계발 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국토부에서는 도심부에 미니 산업단지를 조성하 거나 복합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유도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의 대학들의 존폐 위기와 구조혁신 추세와 맞물려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캠퍼스의 산업단지화와 산업단지 내의 캠퍼스 조성 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심권에 있는 대학이 미래성장동력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시와의 상생, 산업과의 협력이 강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대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어 군산산 업단지를 포함하여 군산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고, 전북대는 최근 캠퍼스 혁신파크를 추진하여 농생명 분야의 업무 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상황임
-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거나 국비사업으로 지역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련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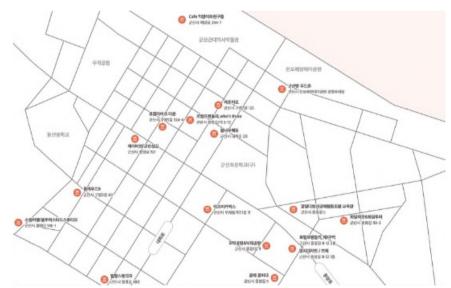
- 산업단지의 캠퍼스화의 경우에는 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형식이라 대학이 보유한 융합 지식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학교 입장에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캠퍼스의 산업단지화는 지역 대학의 역량에 따라 기업 수요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기업 유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 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의 대학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카페나 산학 공동의 업무 공간을 조성해야 함
- 또한 대학과 연계한 업무 공간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 입장에서 대학 발전보다는 지역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학 특유의 왕성한 지식 생산이 기업가적 정신과 결합하여 현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나. 지역의 스토리를 담는 청년 공간 형성

- 앞서 청년들의 행태 변화에서 본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수도권으로 취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소규모의 형태로 지역을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기 시작함
- O 또한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을 독려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 별 차이 없 이 획일화된 청년 공간으로는 모여들지 않음
- 즉, 지역으로 찾아오는 청년들은 해당 지역의 스토리를 따라 문화를 공 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함
- 여기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로 '로컬라이즈 군산'을 들 수 있음
- 로컬라이즈 군산은 지역혁신 창업가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군산에 새로운 가치 및 스토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지역혁신 창업가들의 군산 정착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O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콘텐츠화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 창

업가를 선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의 효과 를 거두고 있음

- O 로컬라이즈 군산은 초기에는 구도심에 있는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와 공유 주방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머물게 함
- 로컬라이즈 군산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 청년보다는 타 지역 청년 창업 가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며, 기업²⁰⁾과 사회적 기업의 협업 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임



출처 : 조상래 외 3인(2021), 지역혁신 창업가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임팩트 '로컬라이즈 군산' 〈그림 3-7〉로컬라이즈 군산 현황

다. 창조적인 문화가 동반된 산업공간 형성

○ 서울 성동구의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사례와 같이 창조적인 거리와 골목을 산업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²⁰⁾ SK E&S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창업가들에게 판로개척, 총보 등 다양한 기획들을 지원함

- O 청년들이 즐겨 방문하고 소비하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일수록 청년들이 몰려들게 되고 창조적인 문화 속에서 창업 및 창작활동이 동반될 것임
-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활성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보다는 아이디어 창업 위주의 소규모 문화산업이나 핸드메이드 소공예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 이 강함
- O 하지만, 이와 같은 업종의 집적은 청년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져 있어 청년 문화의 거리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자원으로 로컬라이프 스타 트업의 집적이 형성될 것임
- 전라북도의 경우 도심 유휴공간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 문화 지역 형성에서 청년 창 업, 청년 취업 및 업무 공간 형성으로 전환될 수 잇을 것임

Jeonbuk Institute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여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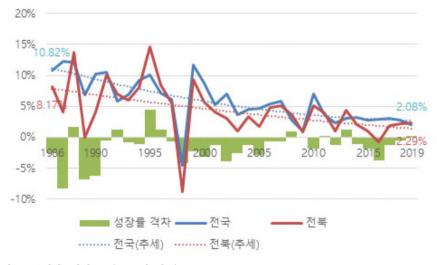
- 1. 산업 기반 측면
- 2. 집적화 가능성 측면

제 4 장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여건 검토

1. 산업 기반 측면

가. 경제산업, 일자리 구조

- O 전라북도 GRDP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3년 이전가 지는 전국 성장 패턴과 동조 현상을 보임
- O 현대중공업, GM대우 군산공산 생산 감소 시점부터 경제적 위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함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2015년 기준)

〈그림 4-1〉 전라북도 GRDP 성장률 추이

-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다음 해인 2017년에 경제활동인 구 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함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15번째 위치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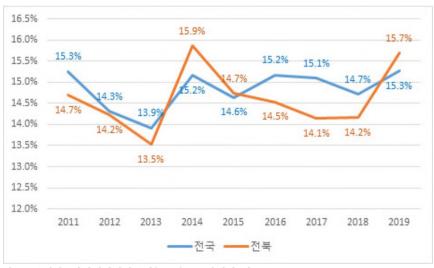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그림 4-2〉 전라북도 창업기업 신생률 추이

- O 안정적인 일자리(상용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작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
-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신설법인 증가율은 3.8%로 전국 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에서 창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음
 - 벤처기업의 수는 약 2.2%로 저조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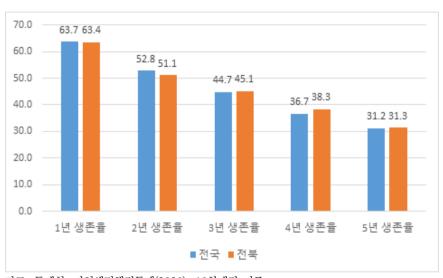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20), 10차개정 기준

〈그림 4-3〉 전라북도 창업기업 신생률 추이

O 전라북도 신규 창업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신생률이 큰 폭으로 상승

- (신생기업 수) 2011년 24,959개 → 2015년 26,835개 → 2019년 33,252개
- (신생률) 2011년 14.7% → 2015년 14.7% → 2019년 15.7%
- O 창업기업 업력을 살펴보면 창업 2년 후까지의 생존율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3년 이후에는 역전되는 추세(5년 생존률 : 전북 31.3%, 전국 31.2%)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20), 10차개정 기준

〈그림 4-4〉 전라북도 신생기업 생존률

나. 국가사업과 연계한 주력산업 성장 가능성

1) 농생명 산업

○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조성, 농생명 연구기관의 협업체계가 우수하며, 전 라북도의 5대 농생명산업 클러스터(농생명혁신도시, 새만금농생명용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자재클러스터, 미생물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의 가치사슬이 잘 갖춰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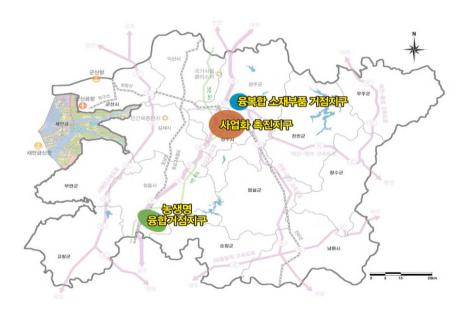
출처: 조승현 외 4인(2017),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기본구상 연구 〈그림 4-5〉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기본구상



출처: 전라북도(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그림 4-6〉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구상

- O 5대 농생명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농생명분야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도모
 -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3D프린터가 융합하여 혁신과 변화를 창출하는 시대에 발맞춰 농생명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첨단농자재, 스마트팜, 유용미생물, 정밀농업 등 미래 농업분야에청년과 기술이 모이는 혁신창업 공간으로 조성
-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 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4번째로 지정됨(2015년 8월)
 - 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인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있고 기술 의 산업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연구소기업 창업이 진행되고 있음
 - 연구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기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 구의 혁신 역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필요



〈그림 4-7〉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

-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방형 R&BD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한 예비 창업자들을 모아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팅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독 립 후에 전북 소재의 산업 거점으로 확산하여 기술 실증 단계를 거치는 체계 를 구축

육복한 소재·치화경 부포

〈표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계 혁신 역량 농생명·비ЮI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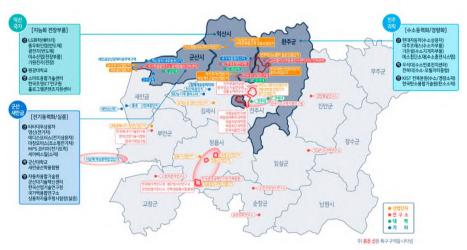
동생병·바이오	중복압 소세·신완성 부품		
[대 핵] • 특구 내 3개 대학 34개 학과(부)에 약 440 명의 교수 재직, 매년 약 140명의 석박사, 1,500여명의 학사인력 배출 [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 및 방사선육종센터, 전주생물 소재연구소 등 연구기관 집적 • 한국형 시드밸리(Seed Valley) 조성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과 미생물을 자원화하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사업 추진 • 15년 혁신도시 내 관련 5개 국공립연구소 이전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관련 과학기술 혁신 인프리를 갖출 것으로 전망	● 특구내 3개 대학 29개 학과(부)에 약 320명의 교수 재직, 매년 약 350명의 석박사, 2,000여명 학사인력 배출 [연구소] ● KIST 복합소재연구소는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 나노분산고분자복합소재, 나노카본복합소재 분야의국내 최대규모 전문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원은 방사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용, 의료용, 환경기술용 첨단 융합소재 개발을 연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초경량・고강도 융복합 소재의 제조, 가공, 부품설계분야 전문기술력 보유 ● 국가나노기술집적센터(전자부품연구원)는 인쇄전자소재 및 장비분야의 우수한 연구기반 및 인력을보유 * 대학(전북대)과 연계한 국내 유일의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시설 및 벤처청업보육 기반을 보유		
기술, 농업용로봇 등	THE OIL		
[산 업] ● 지역 내 약 200여개의 전문기업 입지 - 생물소재 및 공정기술, 식품자원활용, 방사 선이용, 친환경/웰빙 고기능 식품, 친환경 동식물 성장촉진 분야 기업 집적화	[산 업] ● 효성, KCC, 삼양사, 휴비스 등 소재 전문 대기업, 현대자동차, LS엠트론, 동양물산 등 소재활용 완성 차 대기업 입지 ● 지역 내 약 400여개의 전문 중소기업 입지 - 초경량·고강도 탄소소재, 경량합금, 생체합금소재 분야 및 소재응용 부품 제조기업 집적화		
[산업화 지원체계]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지원, 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 ●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등 기술사 업화 지원체계 구축	[산업화 지원체계]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부품 TIC 등을 중심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지원, 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 ●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등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2)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전라북도는 군산GM대우공장 폐쇄 이후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지능형 자동차 개발의 본격화에 필요한 도내 전장부품 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자동차 부품업체가 집적화되어 있으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응하기 위한 전장 기술 융합 및 연관 부품업체 부족
 - 전북 소재 기업은 소기업 위주 단위 부품 생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32개/51개)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에서는 전장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20년부터 자동차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및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378억원 지원 추진 중
 -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조기에 전장부품으로의 대체 지원하여 기존 기업의 회생과 투자 확대를 유도
 - * GM 협력사 기반으로 대체부품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교류, 정 책제안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19.3월), 제논전장, 창원금속공업, 대정, 코스텍, 탑피온, 유로오 토, 우신산업, 한국몰드김제, 세명테크, 티앤지, 서흥전장(총11개) 참여, 국 토교통부, 전라북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지원
- 전북 지역에 부품업체, 완성차 업체, 연구개발기관, 실증 인프라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자동차 및 상용차 업체가 집적된 거점·연계 산단의 연계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를 위한 최적화 산단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군산, 완주, 익산 및 김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 완성차 업체 2개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386업체, 전후방 연관업체가 집적화 되어 있어 안정적인 산업 환경 구축
 - 10인이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전북 점유율: 5% (전북 231 개사/전국 4,605개), 후방산업 포함하면 자동차부품 연관기업은 845개사
 - 전북의 연관 산업 대기업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세아베스틸, 광전자 등이 있음
 -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의 새만금산단 신규투자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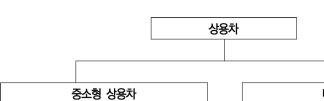
체, 명신과 SNK모터스 등 군산 산단 신규투자 업체의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자율군집주행의 미래형 자동차 실증시험 평가 인 프라 구축
 -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장비(130종 151대), 새만금주행시험장 (8개 시험로, 7종 7대 장비)조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능형 센서 등의 연구개 발지원
 - 예타 면제 대상이 된 전기차 테스트베드 등 R&D 인프라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반이 조성



〈그림 4-8〉 미래형 모빌리티 관련 혁신자원 현황

- 친환경자동차(2019년)과 탄소융복합산업(2020년)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대상단지의 미래형 모빌리티 신시장 창출 환경 확보
 - 전북의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는 대상지역, 중점산업, 기간 측면에서 전 북 산단중심 혁신계획과 정합성을 보여 시너지 창출 가능
 - (소형상용차) 전기 기반의 소형차와 중형 이하 상용차의 경우에는 친환경자동 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 특례와 신산업 육성 시너지 창출 가능
 - (대형상용차) 전기화가 어려운 대형상용차의 경우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동력화와 경량화 소재 연계 신산업 육성 시너지 창출 가능



Û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20~'23, 48개월)

■ 위치: 군산국가/새만금산단(대상산단)

- 내용: 친환경 자동차 규제실증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 실증특례
- 초소형 전기특수차 운행 실증특례
- 소형 특수 전기차 / 중형 상용차 연계
- 참여: TATA대우상용차 등 27개 기업/기관

대형 상용차

Û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20~'24, 48개월)

- 위치: 군산*, 완주*, 전주, 부안(*대상지역)
- 내용: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실증
- 탄소섬유 소형선박소재 실증특례
- 고압/대용량 수소용기 실증특례
- 경량 소화수탱크 실증특례
- 탄소복합재 보강재/파일 실증특례
- 연계: 수소기반 대형 상용차 연계
- 참여: 일진복합소재 등 30개사

〈그림 4-9〉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와 미래형 모빌리티산업과의 관계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대상단지인 군산국가(거점)와 새만 금국가(연계) 대상 상용차 중심 친환경화 규제 특례 적용
 -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친환경 상용차 신시장 창출을 위해 중대형 상용차의 LNG 동력화 및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관련된 규제특례 적용
 - * 참여기업/기관: 타타대우상용차, 명신, 에디슨모터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 LNG 상용차 내압 용기 설치기준 완화 및 운행,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 업 특례를 통해 중대형 상용차의 수소동력화 전환 틈새시장 확보 가능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소방차, 쓰레기압축차 등)의 인증기준 완화 실증 특례 를 통해 생산 제반비용 절감과 틈새 신시장 창출, 기업투자 활성화

3) 에너지신산업21)

○ 전라북도는 최근 10년(2008-17)간 에니지신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

²¹⁾ 새만금개발청(202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는 1,128개로 전체 에니지신산업의 76.5%에 해당하며, 종사자는 12,348명으로 76.6%를 차지함
- 최근 10년(2008-17) 동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체는 452 개에서 1,128개로 증가하여 약 1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종사자 역 시 7,645명에서 12,348명으로 4,703명 증가하여 약 61.5%의 증가율을 기 록함
- 전라북도에 소재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혁신기관들은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 산학연협력센터,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 술연구센터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다수의 연구기관 소재하며, 농생 명, 자동차 등 50여개 융합가능 연구기관 소재
- 관련 대학은 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과 연 구개발을 주도 가능한 대학이 소재하며, 대학별 역량 있는 분야가 나눠 져 있어 상호 융합 가능 기반 확보
-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지연으로 연구기관, 대학 중심의 혁신활동이 이루 어지는 한계가 존재하나, 향후 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되어 관련 기업 유 치가 이루어질 경우 생태계 다양성 확대될 전망
- (역동성) 지역상생 협의 지연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시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선포식 이후 시장창출 및 기업 활동 등에 있어 역동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지역 내 자동차, 수소, 건설기계, 농기계 등 다양한 사업이 역동적 있게 추진되고 있음

2. 집적화 가능성 측면

- O 청년 업무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청년 문화가 형성되고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존재해야 함
-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역 대학이 있는 전주, 군산, 익산 이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완주군이 포함될 수 있음

- 군산의 경우, 이미 SK E&S의 지원 아래에서 로컬라이즈 군산이 형성되어 있으며, 군산대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어 있어 신규 청년업무지구를 조성할 필요성이 낮은 편에 속함
- 전주의 경우에는 전북대와 전주대 등 주요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청 년들을 위한 업무 공간은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이외에는 성공한 사 례가 없으며, 전북대 주도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두 차례 공모 에서 탈락하여 향후 사업 보완 정도 여부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성을 바 라봐야 할 상황임
- 익산시의 경우에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사회적기업을 중심으 로 청년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 O 이 외에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SK E&S 중심의 컨소시엄이 창업클러스 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총 20개의 혁신기업을 입주시켜 육성시키 고자 함



출처 : 새만금개발청 내부자료

〈그림 4-10〉 SK E&S의 새만금 창업클러스터 주요 시설

- 위와 같은 지역들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산업 집적도가 높은 지역이며, 청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 중심의 청년 업무 공가을 조성할 수 있음
- O 하지만, 전라북도의 동부권과 남부권의 경우 청년 비중이 매우 낮아 청년 업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년들의 특정 지역 집중화 및 인구소멸대상지역의 인구 소멸 가속화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 O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 집적화 측면이 아닌 귀농인, 사회적 활동가 집적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 김동영(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찾는 청년들을 크게 4가지 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집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전북을 찾는 청년세대들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추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추구, 지역적 자원에 기반 한 장소기반산업추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첨단업종추구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²²)
 - 농업활동을 하기 위해 지방을 찾는 청년들은 단순한 농업생산자를 넘어 농업 생산과정의 의미부여, 가공을 통한 식품제조, 장소에 기반한 서비스까지 다양 한 가치를 추구
 - 지역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문화와 예술적 재능을 주민들과 결합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
 - 장소기반산업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지역의 이야기나 공 예와 같은 전통이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해 오리지널리티를 경쟁력으로 상품 생산이나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
 - 현재 전라북도 내에 첨단업종 추구 성향의 청년들은 많지 않지만 농업에 ICT 를 결합하거나 전통공예에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²²⁾ 김동영(2018)의 내용을 참고

Jeonbuk Institute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방안

- 1. 기본 방향
- 2.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추진 방안
- 3. 시군 매칭 사업

제 5 장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조성 방안

1. 기본 방향

- 전라북도는 기본적으로 도농 복합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 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청년친화 업무지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도시형의 경우에는 도시권에 위치한 대학과 연계하여 업무공간을 조성 하는 방식과 도심 재개발 차원에서 유휴부지나 공유지에 컨테이너 건축 법을 활용하여 청년 거리를 조성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O 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음
- O 첫 번째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 청년들이 산업단지로의 취업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가 크다는 점과 주변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수도권에서는 복합형 지식산업센터가 효과가 있었던 것은 도심 내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도심권과 거의 흡사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수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산업단지들이 노후화되어 있어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경우 청 년 유입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임
 - 따라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업무지구를 조성해야 함
- 두 번째는 처음부터 특정 산업과 연계하여 업무지구를 조성하지 않아야 됨
 - 서울 성동구나 창원 가로수길의 경우 현재는 청년창업가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미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창업가들을 모으는 기능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 았음
 - 청년들이 즐길 수 있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산업 중심으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청년 문화가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들도 들어서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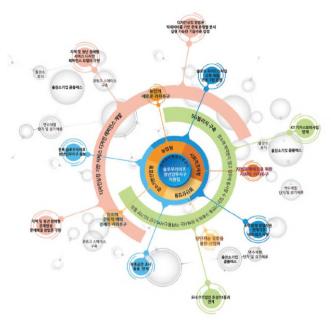
- 전북인구 감소가 청년층의 유출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필요



출처 : 김동영(2018),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그림 5-1〉 농촌형 청년친화 업무공간 조성 방향

- O 농촌형의 경우에는 귀농 청년 및 사회적 활동 청년들을 모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함
- 청년들은 지역으로 와서 직접 본인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고유 성을 갖기를 원하며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 관심있는 등 가치추구 성향을 보이면서 전통적 삶과 자연환경에 융합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청년업무공간을 조성해야 함
- 또한 농촌형 청년친화 업무공간은 도시권에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한 공 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에서 누렸던 편리함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방 향으로 인프라를 공급해줘야 함

- 하지만 문화나 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권에 비해 상당히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시권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최소한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귀농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농촌에서의 삶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로우라이프 여가환경이 결합된 지역으로 조성하여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모델로 조성해야함



출처 : 김동영(2018),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그림 5-2〉 전북형 청년친화 업무지구 개념도

2.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추진 방안

가. 도시형 : 캠퍼스 혁신파크

-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형 청 년 업무공간 조성사업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으로 현재 전북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 O 2021년에는 농생명 분야에 특화하여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계획 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탈락함
- 캠퍼스 혁신파크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체결한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협약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

R&D 지원	기술 고도화	기술인증·테스트	메이커 스페이스
원천기술 사업화 아이디어 도출 등 R&D 지원	전문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 기술 테스트 등 사업화 지원	3D 모델링, 프로토타입 제작 등 시장진출 지원

- 지역 혁신 거점기관(혁신도시 공공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발 스타트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함
 - IR 피칭, 투자 상담회, 멘토링 등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 구 등 관련 정책과 연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나 탄소산업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사업 논리 개발 지원이 필요

나. 농촌형 : 청년마을 만들기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농촌형 청년 업 무 공간 조성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단, 해당 사업은 시군 등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 단체 및 기업들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도에서 자제 사업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혹은 청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기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이 시군마다 최소 1명씩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

3. 시군 매칭 사업

가. 도시형 : 기업·사회적기업연계

- 1) 추진 방향
 - 가) 장소 스토리 기반 공유 문화 향유
 - 도심권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 및 스토리에 기반한 문화산업 중심으로 시작하여 청년 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 O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O 도심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중시

O 사업 대상지별로 유사, 중복,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군간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

- O 도 중간지원조직, 시 중간자원조직을 중심으로 유사한 교육 및 행사, 사 업 등을 통합하여 사업 대상지간 협업 확대
- O 우수 사업대상지에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2) 사업 개요

가) 사업 목표

- O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애착심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
- 청년 친화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청년 고용을 위한 기업 유입을 통해 도시 산업 경쟁력 확보

나) 사업비

- O 사업대상지별로 20억원 이내 (도 : 시 : 민간 = 4 ; 4 : 2)
- O 사업대상지별로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 70%의 우수 사업대상 지는 연장 지원

다) 신청 대상

- O 대상 지역: 행정구역 상 동에 해당하는 지역
 - 구도심일 경우 가산점 부여
- O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활동단체
- O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²³⁾

라) 사업 내용

- O 청년 거리 조성
 - 신규 건물 건립은 지양하며, 기존 시설과 연계하거나 빈 건물 리모델링, 컨네 이터 건축 등 권장

²³⁾ 최근 ESG 경영철학이 부각되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지역 사회에 협업하여 지역 재생 및 창업 지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유휴부지이거나 공유지, 도심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부지 등 우대
- 별도의 토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O 코워크, 코리빙 공간 확보(청년 기업 및 창업가 대상)
- 도시형 산업 창업 지원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O 청년 문화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나. 농촌형 : 공동체 연계

1) 추진 방향

가) 지역 주민과 청년 협력 우선시

- O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귀농 혹은 사회적 활동 청년들간의 협력을 바탕을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지역 활성화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O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 가꾸기와 관련한 사업들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중시

- 사업 대상지별로 유사, 중복,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군간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
- O 도 중간지원조직, 마을협의회, 시군 중간자원조직을 중심으로 유사한 교육 및 행사, 사업 등을 통합하여 사업 대상지가 협업 확대
- O 우수 사업대상지에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2) 사업 개요

가) 사업 목표

O 일자리와 공동체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친화형 마을 조성

나) 사업비

- O 사업대상지별로 20억원 이내 (도와 시군간 5;5 매칭)
- O 사업대상지별로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 70%의 우수 사업대상 지는 연장 지원

다) 신청 대상

- O 대상 지역: 행정구역 상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
 - 시군의 마을 단위로 3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
 - 청년에 대한 정의는 해당 시군의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함
- O 귀농 청년을 고객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마을 청년 및 공동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라) 사업 내용

- O 마을 가꾸기
 - 신규 마을이나 전원 주택 등 신규 주거공간 조성은 지양하며, 기존 주거시설 과 연계하거나 빈집 리모델링, 컨테이너 건축 등 권장
- O 귀농 청년의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
- O 청년 창농, 창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 O 일자리 사업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형 일자리
 - 지역적 자원에 기반한 장소기반 산업형 일자리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8),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관계부처 합동(2019),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경기연구원·한국은행 경기본부(2014),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김군수 외 1인(2014), 청년일자리 거점 : 복합지식산업센터, 이슈&진단 149, 경기 연구원

김동영(2018),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이슈 브리핑 183, 전북연구원

김시백(2017), 전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김인중 외 2인(2015), 캠퍼스의 산업단지화와 산단 캠퍼스, 강워발전연구원

아이부키(2017), 청년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 용역 연구 보고서

안동시(2020),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이원빈(2020),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산업경제 3월 산업연구원

이현주(2020), 도시 미니산업공간의 새로운 개발방향, 202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새만금개발청 외 2기관(2020),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종합실천전략 수립 연구 용역

전라남도(2020),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2017), 청년창농을 위한 농업밸리 조성계획 수립 연구 전라북도(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정회훈 외 1인(2019),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보급형 모델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조상래 외 3인(2021), 지역혁신 창업가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임팩트 '로컬라이즈 군산', 국토 조성철 외 4인(2019),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조승현 외 4인(2017),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기본구상 연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고양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커뮤니티 강회방안 연구용역 춘천시(2018),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계획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한국자치학회 편집부(2016), 서울시 성동구 : 더불어 희망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평생 행복도시 성동, 월간 공공정책 132, 한국자치학회

행정안전부(2021), 2021년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EPJ(2019), SK E&S,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 착착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7)

강원도민일보(2018), 춘천 컨테이너형 청년창업단지 내년 초 착공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29384)

농축환경신문(2020), 전국 최초로 '청년 창농타운' 착공 (http://www.nongup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1)

- 매일경제(2019), [청년을 품는 안양]청년 스마트타운 2곳 조성…창업,주거,문화 원스톱 해결(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9/06/441634)
- 때일경제(2020), 창업,창작…부산 컨테이너형 복합문화공간 7일 일부 개장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8/795474)
- 때일경제(2020), 부산 고가도로 밑의 변신…이색 컨테이너 문화시설로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0/4671752)
- 서울로고디자인연구소(2017),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공익 문화 공간 : 언더 스탠드 에비뉴 (http://www.sldin.com/gnuboard5/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left_menu=20)
- 소비자평가(2017), 도심 속 특별한 컨테이너, '언더스탠드에비뉴'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
- 신동아(2019),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770258/1)
- 중앙일보(2016), [中 혁신 현장을 가다]①중관춘-창업 거리의 커피는 식지 않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912761)

- 중앙일보(2018), 300개 청년기업 품은 마포혁신타운, 내년 4분기 문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69058)
- 테크월드뉴스(2020), 행안부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 공모결과 발표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70)
- 프레시안(2019), 경북형 청년일자리 정책의 정착 시급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5339#0DKU)
- 플랫텀(2019), 로컬라이즈 군산'으로 간 강남 '테헤란로 커피클럽' (https://platum.kr/archives/131336)
- 한국일보(2020), 전남도 청년기업 120개 모인 '농산업 창농타운' 조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91527776801)

정책연구 2021-06

전북형 청년업무지구 조성사업 추진방안 검토

발행인 | 권혁남

발 행 일 | 2021년 7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02-5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